"지방선거 승리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민주당, 당선자 청렴도 교육 '정신무장' 나서
비리 연루자 엄정 조치·본회의 출석현황 공개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당선자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집안 단속에 나섰다.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청렴도 교육 등 '정신무장'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8일 오전 KBS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이라며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는 사람이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패와 비리, 호화청사 같은 지방자치의 구악과 병폐를 일소하겠다"며 "이전의 호화청사 입찰과 건설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방심했다간 선거 승리가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비리 등 문제점이 적발되는 대로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의 눈을 거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내 차원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야당의 역할은 뭐니뭐니해도 견제와 감시"라며 "의정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인 만큼 회기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리를 지켜달라. 최소한 90%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별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현황을 일일이 점검해 회기가 끝나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집안 단속에 나서는 것은 선거 승리에 도취해 긴장을 풀었다간 자칫 여론의 역풍에 직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반사이익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많으며, 아직도 지지도 면에서는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6·2 지방선거 평가 및 향후 한국정치 전망' 토론회에서 "KSOI가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38.5%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해서', 20%가 '여당이 싫어서', 5.1%가 '정권견제 차원에서' 야당에 표를 줬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북풍 이용에 따른 역효과,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야당 승리를 가져왔다"며 "정권견제론의 반사적 이익만 받은 민주당도 이번 선거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예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 승리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특위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486'이 뜬다

민주 송영길·안희정·이광재 새 리더 급부상
한나라 지도부 남경필 등 개혁파 등용 예상

40대의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등 이른바 '486 정치인'들이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의 새로운 리더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386 정치인 그룹에서 진화한 486 그룹은 개혁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내걸면서 민심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40대의 친노·386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의 주인공이 되거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486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당장,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 등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486 그룹을 대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병헌, 조정식, 최재성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외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전 의원 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소장파들이 486 그룹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서도 '486 그룹'이 전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이 20~40대의 표심 이탈로 지적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은 486 그룹 등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상당 부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지방선거 패배 후 잇따라 모임을 갖고 '리더십의 세대교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486 소장파 그룹으로는 원조 개혁소장파로 분류됐던 남경필, 원희룡 의원 외에 소장의원 모임인 민본 21을 이끄는 김성식, 개혁성향의 정태근, 김선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김태호 경남지사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 젊고 능력있는 당 밖의 인사들도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486 그룹의 부상은 추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세대 교체 바람으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다만 486 정치인들이 총선과 대선까지의 기간 동안 어떠한 능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법사위 박지원·우윤근, 통일외교 박주선·김동철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마무리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민주당) 20명에 대한 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8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윤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최인기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법사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반기에 이어 연속으로 배정돼 우 위원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으며 정무위에는 조영택 의원이 소속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김성곤·이용섭 의원이 활동하게 됐으며, 이 의원은 국세청장의 경력 때문에 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또 통일외교통상위에는 김동철(간사)·박주선 의원, 국방위에는 박상천 의원, 행안위에는 이윤석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과위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활동하게 됐으며 문방위에서는 서갑원 의원이 간사 자격으로 단독으로 역할을 해야할 상황이다. 농식품위에는 김효석·김영록 의원이 배치됐으며 지경위에는 김재균 의원이 또 다시 배정을 받았다.

전반기 국회에는 단 한 명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도 없었던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낙연·주승용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 간사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토해양위에는 유선호·강기정 의원이 배정됐으나 환경노동위에는 전반기에 이어 단 한명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중복 배정이 가능한 운영위원회에는 박지원·조영택 의원, 정보위에 박지원 의원, 윤리특위에 강기정 의원이 각각 소속됐다.

예결특위 배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조영택 의원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대신 또 다시 배치될 예정이며 이윤석 의원 등도 배정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 중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엑스포특위 위원장을 맡음과 동시에 행안위에 배정됐으며 김유정 의원은 교과위, 서종표·안규백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국방위에 각각 배치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이유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 등 추가 증인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선고 전까지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세균 의원직 사퇴 1년만에 복직

비주류 "오락가락 처신… 정치권 불신 가중"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일 11개월 만에 의원직에 복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민 속에 있겠다"며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 김 전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대표는 오늘부로 원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 전체의 총의로 원내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 대표의 복귀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 같은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지난 1월10일 복귀한 천정배·장세환·최문순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사기극, 생쇼, 무책임한 정치행위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난무했었다.

정 대표의 복귀 결정에 대해 민주당 비주류 측 한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번복행위로 정치권 불신을 가중시키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그야말로 '연극당, 희극당'으로 비칠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의원직 사퇴의 원인이었던 미디어법이 무효가 되지도 않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 여당과 맞서야 할 각종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의원직에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6·2 지방선거 후 당 소속 당선자와 의원에게는 자숙과 긴장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승리에 도취한 듯 의원직 복귀를 선언한 것은 지나치게 때 이른 감이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